

제9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

일시: 2024년 9월 28일(토) 09:30~15:30

장소: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19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목 차

인사말 / 4

제93회 정기학술대회 세부일정/ 5

알리는 말씀/ 6

개회예배/ 7

주제강연1 김양재/ 10

주제강연2 최상태/ 12

발 제1 곽우영/ 17

논 찬 김용민/ 41

논 찬 이상현/ 45

발 제2 박신향/ 49

논 찬 김태훈/ 67

논 찬 한혜연/ 71

연구윤리 관련 규정/ 75

한국실천신학회 제29대 조직표/ 79

학회로고의 의미/ 81

발행색인/ 82

인사말

구병옥 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제93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실천신학회는 1972년 조직되어 여덟 개의 분과에 천여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융합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실천신학의 특성을 살려 매년 9월에는 보다 목회자들과 지역교회에 유익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정체와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성도 간에 매우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약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쇠퇴의 이면에는 소그룹의 행정조직화, 유명무실화, 소멸이 주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이란 주제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성경적이고 역동적인 그래서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소그룹을 가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들교회는 역동적인 목장(소그룹)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에 역동적 소그룹의 좋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큐티와 소그룹 목장예배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성경적 치유 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며 많은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강연을 해주실 최상태 목사님은 가정교회 사역에 제자훈련을 접목하여 일반적으로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이 전혀 다르고 배치된다는 통념을 깨고 건강한 소그룹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분의 발제자도 소그룹 사역과 비블리오드라마, 영성지도를 접목하여 소그룹 사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회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학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93회 정기학술대회 세부 일정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9월 28일(토) 09:30~15:30
- 장소: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나. 주제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

다. 일정별 세부 계획

시간	세부 내용		장소	
09:30~10:00		접수 및 친교	우리들교회 4층	
10:00~10:30	개회예배	설교: 민장배 이사장	4층 연수홀	
10:30~10:40		환영 인사 및 사진촬영		
10:40~11:40	주제강연1	“큐티와 공동체”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11:40~12:00		질의 응답: 구병옥 회장 (개신대)		
12:00~12:10	연구윤리교육	황병준 편집위원장 (호서대)		
12:10~13:00	점심식사	우리들교회 제공		
13:00~14:00	주제강연2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과의 관계” 최상태 목사 (흠어진화평교회)		
14:00~14:20		질의 응답: 김선일 박사 (웨신대)		
14:20~14:30		휴식		
14:30~15:30	발제	선택1: 곽우영 박사 (호서대)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비블리오프라마-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소그룹 운영을 중심으로” *좌장: 김충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논찬: 김용민 (침신대), 이상현 (순신대)		4층 연수홀
		선택2: 박신향 박사 (호남신대)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영성지도를 중심으로” *좌장: 이강학 (횡블트리니티대) *논찬: 김태훈 (횡블트리니티대), 한혜연 (감신대)	4층 비전홀	
15:30~	폐회	폐회 후 이사회 및 임원회의	4층 연수홀	

* 진행과정에서 시간은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알리는 말씀 ■

1. 제93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설교해 주신 민장배 이사장님,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김양재 목사님, 최상태 목사님과 질의응답, 논문 발제, 논찬, 좌장으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특히 오늘 학회에서 주제강연을 맡아주시고, 장소와 식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학회에 처음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본 학회는 천 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아직 분과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접수대에서 임원들에게 말씀해주셔서 분과에 속하시고, 분과를 통해 더 깊은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4. 두 분의 주제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적극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자료집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6. 학회의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의 연락처로 이 전달됩니다.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2024년 연회비를 아직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바로 계좌이체 부탁드립니다.
8. 제94회 정기학술대회 안내(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 주제: AI와 기독교의 미래
 - 일시: 11월 2일(토) 09:30-17:00
 - 장소: 한우리교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54길 10, 양재역 3번 출구)
9.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예 배

인도: 구병옥 목사

목 도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같이
기 도	박은정 목사	
성경봉독	롬12:3-8	김한호 목사
설 교	“은사에 따른 사역”	민장배 목사
찬 송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다같이
축 도	민장배 목사	
광 고	김병석 총무	

[롬 12:3-8]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통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23

C. Wesley, 1739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AZMON: 8.6.8.6
 (협 5:19) C. G. Glaser, 1828
 보듬으로 Arr. by L. Mason, 1839

1. 만 입이 내 게 있으면 그 입 다 가 지 고
 2. 내 은혜로 신 하나 님 날 도와 주 시 고
 3. 내 주의 귀 한 이 름 이 날 위 로 하 시 고
 4. 내 죄 의 권 세 께 뜨 려 그 결 박 푸 시 고

내 구 주 주 신 은 총 을 늘 찬 송 하 겠 네 서
 그 크 신 영 광 널 리 퍼 다 알 게 하 소
 이 귀 에 음 악 같 으 니 참 희 락 되 도 다 아
 이 추 한 맘 을 피 로 써 곤 정 케 하 셧 네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Eb → D Ab → G Db → C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찬양

(동 11)

거룩한 주님께

42

J. S. B. Monsell (1811-1875)

기독교 찬송 헌트 박사의 찬송가
제 297곡

MONSELL: 12.10.12.10.
W. F. Sherwin (1826-1888)

프랑스어

1. 거룩한 주님께
2. 목전에 서
3. 주삼설바
4. 님가 때치

예접두이
배손려작
블허워은
드행말에

리하면라도
세면라도

무주가가
물너난님
을를한은
꿈언우귀

고제리하
서나를계
영돌도받
광보우으

돌시시시
려리리리

금말보어
갈쌔배둔
은엔론밤
순위진지

종로리나
과와와고
향기온새
기도유아

론엔한침
겸응사맛
손답랑으
을을은니

주네주민
님갈님음
계길계과
바바다소

처르바망
서계칠을
경인귀늘
배도한주

하하예시
세리물리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B^b → G E^b → C F → D Gm → Em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주일

주제강연 1

큐티와 공동체

김 양 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 큐티선교회 대표)

I. 들어가는 말

II. 큐티와 공동체

III. 나가는 말

주제강연 2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소그룹’

최상태 목사

(흠어진화평교회 담임목사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겸임교수)

I. 들어가는 말

- ‘기초 소그룹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 ‘소그룹의 생명은 훈련된 리더에 달려있다’
- ‘제자훈련에 대한 오해’
- ‘제자훈련 포기는 목회포기다’
- ‘제자훈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 ‘제자훈련은 모든 사역의 기초이며 원천이며 바탕이다’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Why?

II. 제자도 (동영상)

1)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 ① 예수 닮은 사람 만들어 내는 훈련
- ② 전인격 변화에 역점을 두는 훈련
- ③ _____ 를 만들어 내는 훈련
- ④ 소그룹 리더를 길러내는 훈련

- ⑤ _____ 를 증대 시키는 훈련
- ⑥ _____ (균형)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내는 훈련

2) 한 사람 목회철학이 무엇인가?

- ①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것(요 21장, 요 10장)
- ② 바울처럼 목회하는 것(롬 16장, 딤후 4장)

3) 훈련된 한 사람의 영향력(롬 5:19)

III. 가정교회 소그룹

1) 소그룹이 붕괴되어가는 이유와 대안이 무엇인가?

2) 가정교회가 무엇인가

- ①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
- ② 예배의 기능을 다 하는 공동체(초대교회)
- ③ 훈련된 동역자에게 사역 위임
- ④ _____
- ⑤ _____

3) 가정교회와 기존의 구역 비교

	가정교회	구역(다락방, 속회)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심 • _____ 중심 • 삶의 나눔에 역점 • 새가족 중심 • 역할/사역 _____ • 분가, 재생산 • _____ 공동체 • 분가 후에도 계속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중심 • 지도자 중심 • _____ 중심 • _____ 신자 중심 • 지도자 혼자 사역 • _____, 재조직 • 수직적 공동체(상하구조) • 재편성 후에는 관계 정지

4) 화평교회 가정교회의 특성

- ① 제자훈련을 기초로한 가정교회
- ② 공동체 성숙에 역점을 둔 가정교회
- ③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정교회
- ④ 큰 공동체와 독립, 보완 유기적 관계(균형)
- ⑤ 분가 / 재생산(번식)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5) 왜 가정교회 소그룹을 지향하는가?

-가정교회는 시대적요청이다-

- ① 성경에 근거한 사역=초대교회의 모습
- ② 관계속에서의 친밀감(공동체성)
- ③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환경과 토양)
- ④ 안정감과 소속감
- ⑤ 학습효과/모방효과(치유)
- ⑥ 전체성도의 사역화
- ⑦ 전도와 선교의 역동성
- ⑧ _____
- ⑨ _____
- ⑩ _____

6)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

- ① 영적지도자의 비전과 확신
- ②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핵심멤버)
- ③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돌봄
- ④ 교회사역의 중심이 되게하라
- ⑤ 기존 프로그램 축소 혹은 폐지
- ⑥ 공동체 성숙에 우선순위
- ⑦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갈망
- ⑧ 분가, 재생산에 역점
- ⑨ _____

IV. 나아가는 말, 본질로 돌아가자

- ◆ 뉴노멀 : AI시대 목회의 최고 대안?
- ◆ 목회의 두 기둥이다.

제 1 발표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

-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소그룹 운영을 중심으로 -

곽 우 영 박사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면수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상담 주제는 친구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면수업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만나는 등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에서도 나타난다. 40대의 여집사 A씨는 “코로나 시기에 교회 모임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부목사님(교구 목사님)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부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상황들의 답답함을 말씀드렸다”라고 토로했고, 여러 고민 끝에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여집사 A씨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코로나 상황을 겪은 교인들이 다시 예배와 소모임들에 참여하면서 비대면 시기에 겪은 고립과 소외감을 치료하고, 대면만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인간에 삶의 형태를 바꿔놓았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다.¹⁾ 대면으로 실시되던 전통적인 주일예배의 개념에 비대면 예배가 포함되었으며, 코로나의 종료 이후에도 언택트(untact) 예배와 줌(zoom)이나 카톡, 밴드와 같은 단체 대화방이 교회 공동체 모임과 함께 병

1) 김병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신학 연구: 기독교 삶의 예배와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7(2021), 568-69.

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는 교인들을 돌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박진우는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상실한 경험’과 대면모임의 시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참여하는 심리사회적 부담감’을 질적연구하여 그 형태를 밝혔으며,²⁾ 박미경은 코로나 시대에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구분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신앙공동체’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목회의 방안을 제시한다.³⁾ 주상락은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와 루시 불리번트(Lucy Bullivant)의 공간이론을 통해 코로나의 대응책으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올라인(All-line) 공간으로 선교와 전도를 실천하는 ‘홀어지는 공동체’를 제안한다.⁴⁾ 강안일은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시대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상호관계로 말하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가상적인 관계들보다 몸을 동반한 만남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⁵⁾ 민장배와 이수환은 코로나 시대에 셀 목회를 교회 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평신도 리더를 활용한 작은 교회로 효과적인 선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⁶⁾ 코로나 이후 교회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회의 소모임으로 대면만남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회에서 소모임은 교인들을 사회적·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실정을 담은 조사 연구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에서 교회 소모임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보다 삶의 질이 더

2) 박진우, "Covid 19 시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 대면 모임 재개에 따른 교회 공동체 경험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2(2022), 573-611; 박진우, "COVID 19 이후 기독교인의 교회 공동체 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신학과 실천』 77(2021), 689-717.

3) 박미경,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교육목회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77(2021), 453-483.

4) 주상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 공간선교, 전도," 『신학과 실천』 73(2021), 831-855.

5) 강안일,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7(2023), 165-192.

6) 민장배, 이수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셀 목회를 통한 선교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73(2021), 807-830.

높으며,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⁷⁾ 신상목은 현재 한국은 ‘외로움 전성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외로움’이 사회적인 현상이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소그룹에 참석하는 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소그룹에 자주 참석하는 교인들(39.7%)은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54.4%) 보다 덜 외로웠다.⁸⁾ 이상화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구조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뢰하고 유대할 수 있는 소그룹 환경이 중요함을 말한다.⁹⁾ 이상의 연구에서 교회 소모임의 활성화가 교회 공동체의 연대감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소그룹으로 출발했고, 소그룹의 활성화는 전체 공동체에 활력을 주었다.¹⁰⁾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와 다르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적 공동체로 말한다.¹¹⁾〈엡 1:22-23〉 이를 통해 본 교회의 특징은 첫째,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며, 그 공동체이다. 둘째, 교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된다.¹²⁾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러한 성경의

7) 신상목과 이상화는 연구조사를 통해 한국에 만연한 ‘외로움 정서’를 파악했고,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에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그중 교회의 소그룹은 성도의 삶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신상목, “외로운 크리스천,”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56-79; 이상화, “처치 인 처치,”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190-217.

8) 신상목, “외로운 크리스천,” 58-69.

9) 이상화는 ‘처치 인 처치’에서 작은 소수의 집단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이 될 때 더 행복함을 밝히며, 교회 안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이상화, “처치 인 처치,” 198-201.

10) 김한욱, “다이트리히 본헤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목회의 원리,” 『신학과 실천』 26(2011), 164-65.

11) 교회를 칭하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구약의 ‘카할(קהל)’을 번역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을 말한다. 현재의 교회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프랭크 틸만/ 최갑중 역, 『에베소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171-72;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에 맞닿은 예수의 영혼돌봄』, (서울: 좋은땅, 2024), 29에서 재인용.

12) 에두아르트 로제(Eduard Lohse)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조명한다. 성경의 이해는 예수를 주(Kyrios)로 인정함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구약 말씀의 성취이며, 성경의 모든 부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조명되어 이해된다고 보았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 된 거룩한 교회(Una sancta ecclesia)이며,

근거는 목회와 목회적 돌봄의 나침판이 된다.¹³⁾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소모임부터 전체 공동체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수의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비블리오드라마('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로 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1인 디렉터(director)¹⁴⁾가 교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하여 교회의 소모임부터 전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연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그간 소집단에만 적용되던 비블리오드라마를 대집단에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연구라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을 정체성으로 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사용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공동체이기에 예수의 '영혼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의 사용은 적절하다. 코로나19는 개인의 소외와 단절이 두드러진 현상이었지만 그 뒤에는 공동체성의 약화가 숨어있었다. 코로나의 종료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역동적인 소그룹 운영방식인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로 대면 만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연합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좋은 목회적 돌봄이 될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역할(role)을 매개로 참여자들이 경험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이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이에서 더 나아가 비블리오드라마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에 둬서 성경

교회론은 그리스도론에서 발전되었음을 말한다. Eduard Lohse, *The Formation of the New Testament*, trans. M. Eugene Boring, (Nashville, TN: Abingdon, 1981), 17-19, 95;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현재적 주인이신 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론을 전개한다. 교회 공동체는 전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의 관계를 밝힌다.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48(2016), 9-47; 김한욱,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목회의 원리, 166-70; 디트리히 본회퍼/ 유석성 역, 『그리스도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7-52.

13) 박기영과 송진영은 패튼(Patton)의 공동체적 목회돌봄 패러다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목회돌봄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박기영, 송진영, "팬데믹 상황에서의 목회돌봄 패러다임 연구," 『신학과 실천』 73(2021), 515-520.

14) 상담은 '상담자(Counselor)-내담자(Counselee)'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상담으로 적용할 때는 '디렉터(Director)-참여자(Participant)'의 관계로 말할 수 있다..

을 사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고유성과 특징을 분명히 한다.¹⁵⁾ 예수의 ‘영혼돌봄’은 목회상담의 근원으로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신 사역들이다.¹⁶⁾ 현재의 목회상담은 심리학을 받아들여 성장했으나 광범위한 목회돌봄의 영역을 개인적 돌봄으로 축소시키고, 심리학에 잠식되어 간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¹⁷⁾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목회상담을 공동체에 회복시키며,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현장에 적용할 근거가 되므로 목회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¹⁸⁾

과천 A교회에서 실시한 ‘영혼돌봄을 비블리오드라마’는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으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텍스트로 한다.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교육을 위해 실시된 이 세미나는 영혼돌봄을 경험할 수 있고, 비블리오드라마 텔레(tele)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도의 형태와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역동적인 소그룹 운영방식과 전체 공동체를 연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전체 세미나의 구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상 나누기(sharing)에서 나온 소감들의 분석연구는 차후를 기약하려고 한다. 1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2장은 역동적인 소그룹인 비블리오드라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은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와 그 적용을 알아보고, 4장은 연구의 실재로서 교회를 연합하는 연구모형을 살펴본 후, 5장은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보겠다.

15) 비블리오드라마는 피터 핏철펴(Peter A. Pitzele)의 구분을 따라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Bibliodrama*와 구전, 민담, 동화, 모래놀이 등으로 비블리오드라마의 방법을 사용하는 *bibliodrama*로 나누어진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성경을 사용하는 *Bibliodrama*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독특성을 드러내고,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새로운 목회상담으로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왔다. Peter and Susan Pitzele, *Scripture Windows: Toward a Practice of Bibliodrama*, 2nd ed., (Teaneck, NJ: Ben Yehuda Press, 2019), xxiv;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본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목회상담적 제안,” 『신학과 실천』 87(2023), 261-284.

16)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48-50.

17) 안석모, “목회 상담의 역사(현대 및 미래의 전망),” 『목회상담 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2009), 185.

18)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목회상담의 기원인 ‘예수의 영혼돌봄’을 정체성으로 하는 새로운 목회상담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02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 목회상담의 이해’를 참고 바란다.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45-60.

II. 역동적인 소그룹인 ‘비블리오드라마’

이 장에서는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의 명칭은 비블리오(biblio, 책, 두루마리)와 드라마(drama, 행위)의 합성어로 참여자가 텍스트인 성경을 역할연기(role playing)를 통해 몸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방식이다. 기존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들은 읽기, 쓰기, 설교 듣기, 성경 공부 등이 있지만 비블리오드라마의 참신성은 역할(role)을 통해 성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에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무대에서 참여자들이 성경을 드라마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극(biblical drama)으로 오해를 받거나, 성극처럼 대본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극과 비블리오드라마의 차이는 분명하다. 성극은 성경을 대본으로 만들어 배우들이 이를 암기하여 훌륭한 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가 성경에서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여 그 인물과 동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무대에서도 드러난다. 성극의 배우들은 짜놓은 동선에 따라 움직이며 대사를 암기하여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연기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들이 성경에서 선택한 자신의 역할을 ‘마음에 오는 대로’ 연기하는 즉흥극(impromptu play)으로 성경의 체험을 위해 연기한다.¹⁹⁾ 연구자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목적을 모든 참여자가 역할을 통해 성경을 경험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관객을 따로 두지 않으며, 그 구성요소를 ‘참여자, 디렉터, 무대’로 보았다.²⁰⁾ 그러나 디렉터에 따라서 ‘관객’을 구성요소에 넣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블리오드라마로 교회의 가장 작은 소모임부터 전체 공동체를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공동체에

19) 즉흥극은 모레노가 사이코드라마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사이코드라마는 비블리오드라마와는 달리 주인공 1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그의 삶을 무대에서 즉흥연기하고,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는 심리극이다. 비블리오드라마가 여타의 집단상담들보다 역동적인 이유는 참여자들이 성경을 드라마로 무대에서 즉흥연기(impromptu act)하기 때문이다. J. L. Moreno, *Psychodrama*, vol. I, 6th ed., (Princeton, NJ: Psychodrama Press, 2019), 73-75; Jack Ward, “The Clergy and Psychotherapy,” *Group Psychotherapy* 20(1967), 204-05.

20) 비블리오드라마는 사이코드라마의 기법과 방법을 차용해서 만들어졌다. 사이코드라마의 창시자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의 구성요소를 ‘주인공, 관객, 보조자아, 무대, 디렉터’의 5가지로 말한다. 연구자가 개발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에서는 모든 참여자를 드라마에 참여시키기 위해 ‘관객과 보조자아’를 두지 않는다.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167-69.

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역동적인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하며 동일한 목회적 돌봄을 이루는 것이다. 관객이 없는 비블리오드라마는 모든 참여자로 드라마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며, 참여자 모두에게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역동성은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도 그 특징을 보여준다. 이상화는 ‘처치 인 처치’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그룹의 구성인원을 7.2명으로 말하며, 셀 목회는 통상 12명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²¹⁾ 비블리오드라마의 구성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6-16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볼 수 있다.²²⁾ 비블리오드라마는 대부분 소그룹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상담으로 개인에게 적용하거나, 의뢰되는 교회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의 증감은 가능하다. 디렉터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 교회현장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블리오드라마를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의뢰할 때 인원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비블리오드라마의 진행은 목회현장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비블리오드라마의 디렉터인 피터 핏첼의 경우 소그룹 외에 학교는 4-30명, 설교는 500-600명을 제시함으로써 비블리오드라마의 목적에 따라 그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²³⁾ 비블리오드라마를 소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여자들 모두가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고, 집단의 역동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 인원수로 효과적인 목회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도 소그룹이 주는 효과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소그룹 인원(3-12명)으로 구역, 목장, 셀 목회 등을 활용하고 있다.²⁴⁾ 소그룹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되는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다.〈롬 12:4-5〉 역동적인 소그룹

21) 이상화, “처치 인 처치,” 206; 민장배, 이수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셀 목회를 통한 선교 방안 연구,” 814.

22) 피터 핏첼은 4-30명, 팀 슈랍은 8-16명, 게르하르트 마르셀 마르틴은 12-18명을 소그룹의 적정 인원수로 본다.: Peter and Susan Pitzele, *Scripture Windows*, 206; Tim F. Schramm, “Bibliodrama in Action: Reenacting a New Testament Healing Story,” In *Body and Bible: Interpreting and Experiencing Biblical Narratives*, ed. Björn Krondorfer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2), 62; Gerhard Marcel Martin, *Sachbuch Bibliodrama: Praxis und Theorie*, 2nd ed. (Stuttgart: Kohlhammer, 2001), 9;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297-98.

23) Peter and Susan Pitzele, *Scripture Windows*, 206;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297에서 재인용.

24) 민장배, 이수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셀 목회를 통한 선교 방안 연구,” 808-809.

은 구성원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모임 안에서 활발한 소통과 공감의 상호작용을 한다. 친밀하지 못한 모임에서는 집단의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집단에서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모임이 대면모임으로 전화되었을 때 교인들이 공동체에 적응이 어렵게 하는 요인은 긍정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었다.²⁵⁾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모임 안에서 활발한 소통과 공감의 상호작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드라마에서 참여자들이 역할(role)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적인 대인관계를 연습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블리오드라마의 연구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의 역할을 통한 대인관계 경험은 현실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²⁶⁾

역동적인 비블리오드라마를 만드는 또다른 요인 중 하나는 참여자의 역할몰입이다. 역할몰입은 참여자가 드라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역할에 동일시하는 것으로 드라마(drama) 단계에서 나타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보통 워업(warm-up), 드라마(drama), 나누기(sharing)의 구조로 이루어지며,²⁷⁾ 이 세 가지 구조는 상호연관되어 있다. 워업은 참여자들의 만남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친밀함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집단상담에서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참여자들이 타인에 대한 경계를 풀고 성경 드라마의 잉여현실(surplus reality)²⁸⁾에 들어

25) 박진우는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을 참석한 교인들 경험'을 질적연구하여 6가지 특성을 도출했다. 그중 대면모임 참석에 대한 어려움은 '교회공동체에 부정적인 경험을 함', '대면 모임에 참여하면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함'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박진우, "Covid 19 시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 대면모임 재개에 따른 교회 공동체 경험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2(2022), 592-94.

26) 광우영, "비블리오드라마의 향후 과제와 목회적 돌봄: 아동의 메소드 훈련을 적용한 아동 비블리오드라마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1(2022), 532-33.

27) 게르하르트 마르틴(Gerhard Marcel Martin)은 비블리오드라마의 과정을 몸을 깨우고, 무대에서 놀이하며, 경험을 나누는 세 단계로 보았으며, 피터 핏철펴(Peter A. Pitzele)은 워업(warm-up), 연기(action), 성찰(reviewing)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예열과정, 역할연기를 통한 경험, 참여자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말한다. Martin, *Sachbuch Bibliodrama*, 10; Peter and Susan Pitzele, *Scripture Windows*, 13-17; 광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 133-35에서 재인용.

28) 잉여현실(surplus reality)은 꿈처럼 참여자의 주관적 현실이 진실이 되는 공간이며, 비블리오드라마의 무대는 참여자가 성경 이야기를 '지금-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로 경험하는 잉여현실이 된다. Zerka T. Moreno, Lief Dag Blomkvist and Thomas Rützel, *Psychodrama, Surplus Reality and the Art of Healing*, (New York: Routledge, 2000), 1-2.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워업은 일반적으로 놀이를 많이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재미의 요소로 참여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과천 A교회의 ‘교구장 및 지역장 모임’을 마치고 설문지 조사에서 ‘비블리오드라마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라고 나누기를 했다. 이것은 워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알려준다. 워업은 몸을 움직여 표현하고 소통하여 참여자들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참여자들의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게 돕는다. 실제로 교회의 소그룹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점은 ‘성도의 교제’가 가장 컸다.²⁹⁾ ‘성도의 교제’는 상호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관계는 목회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치료의 토대로 작용한다.³⁰⁾ 워업은 상담 초기에 라포(rapport)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소그룹의 목표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집단에 동질성을 부여하여 집단이 응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드라마(drama)는 무대에서 참여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역할연기(role playing)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선택한 후 무대에서 즉흥극으로 진행된다. 무대에서 참여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현실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재현(representation)하여 역동성을 보여준다.³¹⁾ 참여자들의 역할몰입은 자신이 선택한 역할과 동일시할 때 나타나며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순간으로 성경 이야기의 잉여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드라마에서 역할(role)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고(mirroring), 몰입을 통해 참여자의 내면에도 역동적인 심리변화가 일어난다. 다음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눅15:25-32〉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한 느낌은 첫째와 둘째를 못 볼 것 같았어요. 첫째 아들은 매일 부러먹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래도 나를

29) 교회 소그룹이 주는 이점은 성도의 교제(35.8%), 삶의 위로/안정감(26.2%), 신앙 성장(21.2%), 교회 사역 동참(9.6%), 대외 봉사사역 동참(3.8%), 성경 지식 축적(3.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화, “처치 인 처치,” 198-201.

30) 리처드 데이링거/ 문희경 역, 『관계중심 목회상담』 (서울: 솔로몬, 2004), 15-16.

31) 재현(representation)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성한 의례에 드라마로 동참하는 것으로, 행동의 동일화로 말해진다.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참여자의 역할몰입은 이러한 동일화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Johan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Rev. ed., (Mansfield, CT: Martino Publishing, 2014), 15.

좋다고 해주니까 좀 미안했어요. 너무 첫째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했어요. 실제로 집에서 첫째예요. 둘째랑, 셋째랑 싸울 때 각자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³²⁾

사례자는 ‘아버지 역할’에 감정이입하고 자신을 모습을 돌아보았다. 위의 비블리오프라마는 몇 년 전에 디렉팅(directing)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당시의 현상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역동적이었다. 참여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블리오프라마의 역할경험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소그룹이 풍성한 교제를 통해 활성화될 때 참여자의 내면도 변화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 나누기(sharing)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역할을 벗고 현실로 돌아와 비블리오프라마에 참여한 소감과 느낀 점을 나눈다.

요컨대 비블리오프라마는 대면 만남을 통해 소그룹의 관계형성을 돕는 역동적인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비블리오프라마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내적 변화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된다. 비블리오프라마 참여효과 연구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를 경험하여 상황을 새롭게 다루는 방식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이 필요한 현실에서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비블리오프라마는 참여자 모두에게 소외됨 없는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며, 성경 이야기를 통한 성도의 교제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프라마’

이 장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연합하는 방법인 ‘영혼돌봄의 비블리오프라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전 장에서는 소그룹으로 구성하는 역동적인 비블리오프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며 비블리오프라마의 기본내용들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프라마’는 기존의 비블리오프라마

32) 2019년 A시 교회에 부속 지역아동센터에서 비블리오프라마를 실시했으며,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한 후 인터뷰한 내용이다. 참여자는 집에서 4명의 자매 중 첫째였으며, ‘아버지 역할’에 자신의 실제 상황을 대입시켜 생각했다.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프라마』, 108-109.

33) 곽우영, “비블리오프라마의 향후 과제와 목회적 돌봄,” 532.

를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비블리오드라마의 역동적인 특징에 영혼돌봄의 정체성을 더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그 역동성을 보여주지만 텍스트인 성경이 가진 독특성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여기에서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가 무엇인지 기존의 비블리오드라마와 차이 점을 통해 살펴보고, 과천 A교회에 적용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영혼돌봄’으로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고유한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보고 이것을 비블리오드라마의 정체성으로 적용한 것이다. 기존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역할연기(role playing)를 통해 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위상을 비블리오드라마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경을 사용하는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와 동화나 구전으로 이루어지는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동일하게 다룰 때 성경은 ‘훌륭한 고전’이나 ‘삶의 지혜를 얻는 이야기’ 정도로 쓰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비블리오드라마의 방법과 형식이 사이코드라마를 차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렉터는 비블리오드라마를 사이코드라마의 심리치료처럼 사용할 수 있다.³⁴⁾ 연구자는 비블리오드라마의 텍스트가 성경이며, 성경의 쓰인 의미와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영혼돌봄’을 비블리오드라마의 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³⁵⁾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이 핵심적으로 증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인 ‘영혼돌봄’을 비블리오드라마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비블리오드라마를 여타의 다른 텍스트들을 사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와 구별하는 특징이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가 기존의 비블리오드라마와 다른 차이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예수의 ‘영혼돌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따르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신학적 방법이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고, 그를 전하는 공동체로 예수의 제자들로 시작되었다.³⁶⁾ 기존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사용되었지만,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의 ‘영혼돌봄’을 정체성으로 진행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목회사역으로 교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예수의

34) 광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본 비블리오드라마,” 267-69.

35) 광우영, “비블리오드라마의 향후 과제와 목회적 돌봄,” 525-26.

36) 광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본 비블리오드라마,” 271-72; 클라우스 빈클러/ 신명숙 역, 『목회상담과 영혼돌봄』 (서울: 학지사, 2007), 111-12.

‘영혼돌봄’은 목회상담의 기원으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본받을 수 있다. 예수의 ‘영혼돌봄’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등 실제 삶에서 보여주신 일들이다.³⁷⁾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고, 행동의 변화 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등 효과적인 영적지도로 영혼돌봄을 하셨다.³⁸⁾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예수 역할’을 하거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영혼돌봄’의 방법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적치유를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목회상담방법이다.³⁹⁾ 셋째, 예수의 ‘영혼돌봄’은 교회 공동체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수의 ‘영혼돌봄’은 가정교회(House Church)와 같은 소그룹뿐만 아니라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졌다.〈마 12:46-50, 눅 11:27-28〉⁴⁰⁾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비블리오드라마의 역동적인 특성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소그룹과 전체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엡 1:22-23〉 소그룹의 성장은 집단의 체계가 역동적일 때 가능하며⁴¹⁾ 역동적인 소그룹은 전체 교회 공동체에 활력을 준다.⁴²⁾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비블리오드라마의 역동적인 특성을 전체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과천 A교회에 적용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소그룹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주며, 예수의 ‘영혼돌봄’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의 구성은 디렉터가 리더들을 훈련하여 하위 조직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렉터는 교회의 리더그룹(교역자, 지역장 및 구역장, 평신도 지도자)을 교육하여 상위 리더그룹(교역자)이 하위 리더그룹(평신도 지도자)에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시하게 한다. 리더그룹은 디렉터가 진행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경험하고, 토론하여 자신의 하위그룹을

37) 빈클러, 『목회상담 영혼돌봄』, 107-111.

38) David G. Benner, *Care of Soul: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26-28.

39) 광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본 비블리오드라마,” 29-30.

40) 신디아 닐 김블/ 한숙자 역, “가족붕괴: 발달적 접근,” 『영혼돌봄의 상담학』, 마크 맥민, 티모스 필립스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533-36, 547-49.

41) 이기춘, 『메타히어링』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15), 498.

42) 김한옥, “디이트리히 본훼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목회의 원리,” 164-65.

디렉팅(directing) 할 준비를 시작한다. 둘째, 하위 리더그룹(평신도 지도자)은 전체 강연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그룹의 리더(교역자)가 이끄는 비블리오드라마에 참여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역자→지역장 및 구역장→평신도 지도자’로 연결되는 리더훈련을 보여주며, 교역자들의 경우 디렉터의 교육으로 3회의 비블리오드라마에 참여하게 된 후 직접 비블리오드라마의 디렉터로 소그룹을 이끈다. 지역장 및 교구장의 경우 비블리오드라마에 2회 참여하고 교역자의 디렉팅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디렉터의 전체강연을 듣고, 교역자의 디렉팅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한다. 이처럼 상위 리더그룹이 하위 리더그룹을 훈련시키는 것은 1명의 디렉터가 다수를 교육하기에 용이한 방식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세션으로 잘 훈련된 리더들을 양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전체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말씀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 내용을 편지로 전하는 것(전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워업, 드라마, 나누기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워업(warm-up) 단계에서는 ‘고리 풀기, 예수님 만나기’를, 드라마(drama) 단계에서는 ‘중요한 그 사람에게 편지 쓰기(전도)’를, 나누기(sharing) 단계에서는 소감 나누기와 설문지 작성을 실시했다. 주요 기법으로 비블리오드라마의 텔레(tele)를 활용한다. 텔레(tele)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달되는 단순한 느낌의 상태로 ‘사람들 사이의 이끌림’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관계 안에서 오가는 양방향적인 영향력이다.⁴³⁾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상담에서는 ‘타인에 대한 느낌’이 무의식을 통해 과거의 경험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본다면, 텔레는 현재에 대한 직관으로써 ‘자각’되는 것을 말한다.⁴⁴⁾ 텔레는 비블리오드라마에 전반적으로 사용된다. 과천 A교회서는 워업의 ‘예수님 만나기’와 드라마의 ‘중요한 그 사람에게 편지 쓰기’에서 텔레가 사용되었다. ‘예수님 만나기’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텔레에 따라 끌리는 예수를 찾는 방식이다.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러쓴 후 뒤로 돌아서고, 다른 참여자들은 ‘오늘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자신의 느낌인 텔레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포스트잇과 같은 쪽지에 적어서 자

43) J. L. Moreno, *Psychodrama*, vol. II, 2nd ed., (New York, NY: Beacon House, 1975), 5-6; J. L. Moreno, *Who Shall Survive?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Interrelations*. Rev. ed., (London: Forgotten Books, 2018), 432.

44) 곽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본 비블리오드라마,”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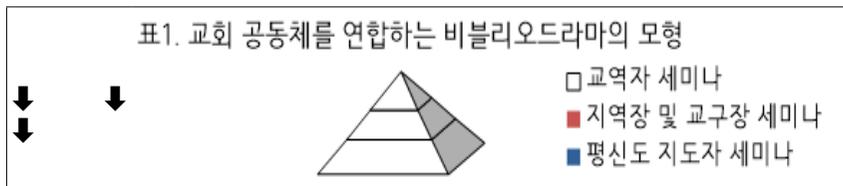
신이 선택한 예수님의 등에 붙인다. 이후 디렉터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은 예수
를 선택한 느낌과 그에게 바라는 점 등을 나눈다. 참여자들이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직접 ‘예수 역할’을 해보거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인 예
수를 경험하는 것으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에서 핵심적인 방법이다. ‘중요
한 그 사람에게 편지 쓰기’는 텔레 기법을 활용하며, 드라마에서 성경 본문 낭독과
묵상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이 돌씩 짝을 지어서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왼편 참여자는 눈을 감고 디렉터의 지시에 따라 인생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연
상한다. 디렉터는 오른편의 상대방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왼편 사람들의 연상이 끝나면 눈을 뜨고 앞에 앉은 상대방에게 하고 싶
은 말을 하게 한다. 이 경우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역할’이 되어
왼편의 참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한다. 텔레는 ‘빈 의자 기법(empty chair)⁴⁵⁾
과 달리 맞은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의 역할을 해주는 대상이 있어서 ‘빈 의자 기법’
보다 몰입하기에 좀 더 수월한 면이 있다. 디렉터는 역할 바꾸기(role reversal)⁴⁶⁾를
하여 오른편 참여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연상하고, 왼편 참여자가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두 사람 모두 텔레를 경험하면 각자의 편지지에 요한복음 16장을 ‘만
나고 싶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시간을 갖고, 편지를 쓴
후 상대방에서 편지를 읽어준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의 나누기 시간에 작
성한 설문지 조사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80-
90%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어
서 좋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에게 요한복음 16장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복음전도를 떠올렸으며,
이 경험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IV. 실제: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 모형

45) 46) 역할 바꾸기(role reversal)와 빈 의자 기법(empty chair)은 사이코드라마의 창시자인 모레노
가 창안했으며, ‘역할 바꾸기’는 상대방의 역할이 되어 그의 상황과 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경
험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빈 의자 기법’은 연상(심상)을 통해 원하는 상대방을
불러오거나 때로는 새로운 상대방을 초대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사이코드라마와 비블리오드
라마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이다. *Ibid.*, 142-44, 181-83.

과천 A교회에서 실시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그간 소그룹으로 진행되던 비블리오드라마를 전체 교회에 연결한 최초의 사례이며,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을 보여준다. 이 교회는 성도 3천 명 정도의 중대형교회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성경교육과 다양한 문화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교인수가 증가한다. 과천 A교회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며, 매년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도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의 일환으로 과천 A교회에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진행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예수의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사용하며, 이것은 비블리오드라마로 교회 전체를 연합할 수 있는 목회신학적 방법이다. 연구의 목적은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전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위 리더집단부터 하위 리더집단까지 순차적인 교육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하며, 디렉터의 리더교육을 통해 리더들이 소그룹에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시하여 전체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세미나의 진행시기는 2021년 5~6월 한 달 동안이며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의 회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구성했다. 준비과정은 4월부터 담임목사와 3번의 회의 및 토론을 했다. 세미나의 진행과정은 <교역자 세미나>(2번), <지역장 및 교구장 세미나>,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의 순서이다. 또한 전체 교회에 동일한 목회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학교 세미나>와 3개의 중·고·청년부서에 시연을 했다. 전 과정은 VOD로 녹화했으며,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병행했다.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은 위의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진행방향은 교역자, 지역장 및 교구장, 평신도 지도자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서 교역자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직접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세미나 참여한 인원수는 <교역자 세미나> 약 23명, <지역장 및 교구장 세미나> 약 60명(지역장 및 교구장 약 40명, 교역

자 약 20명),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약 500명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록 참여 인원수는 늘어난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의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요한복음 16장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으며, 평신도 지도자들도 전체 강연과 교구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역동적인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상위 리더그룹인 교역자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 세미나에 총 3번 참석하고, 지역장 및 교구장은 2번, 평신도 지도자는 1번의 전체강연에 참석한다. <교역자 세미나>는 교육과 실습으로, <지역장 및 교구장 세미나>는 실습으로,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는 디렉터의 전체강연과 교역자의 비블리오드라마 진행(디렉팅, directing)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서는 디렉터의 강연이 끝나면 교역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구대로 분리하여 자신이 맡은 교구에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디렉팅한다. 이것은 상위 리더집단인 교역자가 하위 리더집단인 평신도 지도자의 소그룹에 비블리오드라마를 시연하는 것으로 교역자의 훈련방법이나 교사교육에도 좋은 방향성을 보여준다.

과천 A교회에서 보여준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에서는 교역자부터 평신도 지도자들로 이어지는 교육의 방향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1인 디렉터는 상위 리더그룹을 교육하고, 상위 리더그룹은 하위 리더그룹에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시연한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과 실습을 통해 새로운 디렉터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의의도 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점차 개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영혼돌봄’으로 소그룹들을 활성화시켜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비블리오드라마로 교역자 그룹부터 평신도 그룹까지 연결되어 교회의 본래적 모습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회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 모형’에서 각 세미나의 단계별 특징이다.

A. 교역자 세미나

과천 A교회에 적용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에서 교역자들은 세미나의 전체 방향설정을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역자 세미나>를 실시하여 두 개의 본문으로 실습과 공개토론을 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창 3:1-8>는 비블리오드라마를 이

해하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습하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개방토론을 했다. 이것은 담임 목회자와 교회의 실무자인 교역자들에게 생소한 비블리오드라마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으로 이 실습을 토대로 전체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본문을 요한복음 16장으로 확정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비블리오드라마를 적용하기 위해 전체 세미나의 구상과 전개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B. 지역장 및 교구장 세미나

지역장과 교구장은 교회의 소그룹인 교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서 교역자들이 담당 교구에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진행할 때 이들을 돕는 역할(helper)을 한다. <지역장 및 교구장 세미나>는 소그룹 모임으로도 의미가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집단의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통해 지역장과 교구장의 단합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사명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교역자들은 프로그램의 스태프(운영진)로 전체 진행을 돕고, 워업의 ‘예수님 만나기’에서 ‘예수 역할’로 참여했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진행에서 스태프들의 사전교육 여부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교역자들처럼 비블리오드라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한 스태프들은 프로그램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만, 스태프들이 사전에 교육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거나 집단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교역자들의 경우 이 세미나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되며,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지역장과 교구장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C.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는 강연과 소그룹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약 50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디렉터에게 ‘영혼돌봄 비블리오드라마’의 개요에 대한 강연을 듣고, 간단한 실습을 한다. 이후 교구별로 모여 담당 교역자의 진행아래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한다. 이때 지역장과 교구장은 참여자이자 스태프의 역할(helper)로 함께 한다.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로 소그룹과 대그룹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대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보통 강연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소그룹과 같은 역동성을 경험하기 어렵

다. 이 세미나에서는 강연과 함께 교육된 리더들(교역자, 지역장 및 교구장)이 소그룹에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역동성을 잃지 않는다. 교회 내부의 리더집단을 교육하여 활용하는 것은 리더를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아니라, 외부 리더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내부의 실정을 잘 아는 리더를 세움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은 1인 디렉터가 대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천 A교회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리더교육을 통해 소집단부터 대집단까지 요한복음 16장으로 동일한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D. 그 외: 교회학교 세미나 및 시연

앞의 세미나들은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시하여 교회 전체의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다. <교회학교 세미나>와 중, 고, 청년부들에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시연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소외됨 없이 목회적 돌봄을 하는 것이다. 이들을 번외로 표기한 이유는 교육부서는 그 특성상 연령과 발달단계의 특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비블리오드라마의 적용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보통 교회의 세미나와 집회들은 장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회학교는 절기와 수련회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이유는 교회학교는 그 대상들이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발달단계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 권장된다. 또한 <교회학교 세미나>의 경우 유아, 유치, 초등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표 1의 ‘교회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또 다른 적용예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과천 A교회의 사례에서는 교육부서도 소외됨 없이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시하여 교회 전체가 실제적으로 동일한 목회적 돌봄을 경험하도록 했다.

V. 나가는 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에게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의 필요성이 높

아졌다. 그간 비블리오드라마는 성도들이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으로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성경을 사용하는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공동체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엨 1:22-23〉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목회신학적인 원리가 되며, 예수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예수의 ‘영혼돌봄’은 목회상담의 기원으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적치유를 개인과 공동체에 회복시키는 목회상담이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목회상담으로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교회 공동체에 성경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을 활용하는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이다. 둘째, 참여자는 역할(role)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객관화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여 ‘자기 이해’를 향상한다. 셋째,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상호협력하고, 연합하는 관계를 배울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의 특징은 친밀한 교제와 상호관계 형성을 배우는 것이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돕는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에 대한 경험은 ‘예수 역할’이나 ‘예수를 만나는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적지도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⁴⁷⁾ 요컨대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의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교회의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친교와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소그룹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천 A교회에 적용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비블리오드라마로 소그룹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하는 최초의 사례연구이며,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성경을 사용하는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인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로 소그룹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전체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소모임의 요소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한 소그룹의 활성화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새로운 성경공부’로 불릴 만큼 성경을 체험하여 알게 되는 방식은 효과적인 성경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비블리오드라마를 말씀연구를 위한 방법이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교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히려 성도의 교제를 말씀으로 하여 ‘성경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상적인 소

47)곽우영, “비블리오드라마의 향후 과제와 목회적 돌봄,” 56-59.

모임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둘째는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워업, 드라마, 나누기를 대면만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참여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만남과 소통이 어려운 현대인들이 비블리오드라마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사회적 소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과천 A교회 사례에서 나누기(sharing)에서 지역장 및 교구장의 설문지 내용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어떤 사역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응답은 ‘새신자들’과 ‘전도’가 비슷하게 수치로 높게 나왔다. 참여자들은 비블리오드라마로 소통을 통해서 친밀하게 되는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였고, 이러한 상호관계의 유연성이 복음전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적용한 실제에서 요한복음 16장의 편지 쓰기는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를 보여준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소그룹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공동체로 그리스도는 소그룹 교제의 기초이다.⁴⁸⁾ 과천 A교회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소그룹과 대그룹을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연결하는 것은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로 역동성은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에 적용하는 것은 예수의 ‘영혼돌봄’을 통한 영적지도를 교회와 공동체에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은 역동적인 소그룹에 머물러있던 비블리오드라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교회 전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목회 상담방법을 보여준다. 과천 A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형’으로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48) 강안일은 본회퍼의 모든 신학적 진술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현재적 주님’이라는 바탕으로 저작되었다고 말한다.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 9-47: 김한옥,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목회의 원리,” 166-170.

■ 참고문헌 ■

-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48(2016), 9-47.
- _____.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7(2023), 165-192.
- 곽우영. “비블리오프드라마의 향후 과제와 목회적 돌봄: 아동의 메소드 훈련을 적용한 아동 비블리오프드라마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1(2022), 521-545.
-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프드라마: 비블리오프드라마에 맞닿은 예수의 영혼돌봄』. 서울: 좋은땅, 2024.
-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본 비블리오프드라마: 비블리오프드라마를 통한 목회상담적 제안.” 「신학과 실천」 87(2023), 261-284.
- 김병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신학 연구: 기독교 삶의 예배와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7(2021), 567-598.
- 김한옥.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목회의 원리.” 「신학과 실천」 73(2021), 807-830.
- 디트리히 본회퍼/ 유석성 역.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리처드 데이링거/ 문희경 역. 『관계중심 목회상담』. 서울: 솔로몬, 2004.
- 민장배, 이수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셀 목회를 통한 선교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26(2011), 163-190.
- 박기영, 송진영. “팬데믹 상황에서의 목회돌봄 패러다임 연구.” 「신학과 실천」 73(2021), 503-530.
- 박미경.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교육목회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77(2021), 453-483.
- 박진우. “Covid 19 시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 대면 모임 재개에 따른 교회 공동체 경험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2(2022), 573-611.
- _____. “COVID 19 이후 기독교인의 교회 공동체 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신학과 실천」 77(2021), 689-717.

- 신디아 닐 김볼/ 한숙자 역. “가족붕괴: 발달적 접근.” 『영혼돌봄의 상담학: 가족붕괴:발달적 접근』, 마크 맥민, 티모시 필립스 편, 527-552.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신상목.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외로운 크리스천』. 서울: 규장, 2023.
- 안석모, 『목회상담 이론 입문: 목회 상담의 역사(현대 및 미래의 전망)』. 서울: 학지사, 2009.
- 이기춘. 『메타히어링』. 서울: 도서출판, 2015.
- 이상화.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처치 인 처치』. 서울: 규장, 2023.
- 주상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 공간선교, 전도.” 『신학과 실천』 73(2021), 831-855
- 클라우스 빈클러/ 신명숙 역. 『목회상담 영혼돌봄』. 서울: 학지사, 2007.
- 프랭크 틸만/ 최갑종 역. 『에베소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 Benner, David G. *Care of Soul: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 Huizinga, Johan.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Rev. ed. Mansfield, CT: Martino Fine Books, 2014.
- Lohse, Eduard. *The Formation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M. Eugene Boring. Nashville, TN: Abingdon, 1981.
- Martin, Gerhard Marcel. *Sachbuch Bibliodrama: Praxis und Theorie*. 2nd ed. Stuttgart, DE: Kohlhammer, 2001.
- Moreno, J. L. *Psychodrama. Vol. I. 6th ed. Princeton, NJ: Psychodrama Press*, 2019.
- Moreno, J. L. *Psychodrama. Vol. II. 2nd ed.* New York, NY: Beacon House, 1975.
- Moreno, J. L. *Who Shall Survive?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Interrelations*. Rev. ed. London, UK: Forgotten Books, 2018.
- Moreno, Zerka T., Lief Dag Blomkvist and Thomas Rützel. *Psychodrama, Surplus Reality and the Art of Healing*. New York: Routledge, 2000.
- Pitzele, Peter and Susan Pitzele. *Scripture Windows: Toward a Practice of*

Bibliodrama. 2nd ed. Teaneck, NJ: Ben Yehuda Press, 2019.

Schramm, Tim F. "Bibliodrama in Action: Reenacting a New Testament Healing Story." In *Body and Bible: Interpreting and Experiencing Biblical Narratives*, ed. Björn Krondorfer, 57-84. Philadelphia,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2.

Ward, Jack. "The Clergy and Psychotherapy." *Group Psychotherapy* 20(1967), 204-210.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 -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소그룹 운영을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김 용 민 박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비블리오드라마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곽우영 박사님(이후 저자)이 추가될 듯 합니다.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라는 새 영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비블리오드라마 안에 속하면서도 ‘영혼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논문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좋은 땅, 202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텍스트인 성경의 독특성을 담아내고자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성경의 의미와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인 영혼돌봄’을 비블리오드라마에 적용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시하고 있지만, 좀더 설득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볼 때, 구속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당연시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이런 관점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저자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에 한정하고 예수님의 역할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통해 영혼돌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부락을 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세분화해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영역화했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블리오드라마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더 공고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상담에서 성경의 사용은 오랜 주제입니다. 워벌리(Edward P. Wimberly)는 성경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투사와 동일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다양한 투사와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거나 하나로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 교회 사례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비블리오드라마와 효과적 측면에서 지향점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가 성경을 텍스트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블리오드라마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행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없습니다. 성서그림검사의 경우 내담자가 투사한 그림과 텍스트인 성경과의 차이를 통해 내담자의 심리를 평가합니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가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비블리오드라마와 다르다면, 그러한 차이가 실천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동일시와 함께 투사를 이용한 목회상담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참여자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든지 예수님의 역할을 하든지 참여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자기 투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성경의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를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터는 성경에 대한 본의적 이해(exegesis)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인지 자기 투사의 산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교회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은 하향적 방식으로 교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 적어도 그들의 경험이 성경적인지 자기 투사적 산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교회의 영혼돌봄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향적 방식 또는 피라밋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과연 영혼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주신 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족하나마 저자의 글을 읽으며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는 제 오해도 한 몫했으리라고 봅니다. 온전한 이해는 오해를 반드시 수반하니,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제가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자의 생각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경험이 담긴 귀한 글을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 -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소그룹 운영을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이상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이 연구는 예수의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비블리오드라마로 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교회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목적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는 한사람의 디렉터가 교역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을 교육해 소모임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임을 연구자는 제의한다. 연구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모형을 제시하는 본고는 그동안 대체로 소집단에 주로 적용되던 비블리오드라마를 대집단에 연결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는 디렉터의 리더교육을 통해 리더들이 소그룹에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시하여 전체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구조의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 논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을 정체성으로 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고찰하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2장은 역동적인 소그룹인 비블리오드라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3장은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와 그 적용을 알아보고, 4장은 연구의 실제로서 교회 공동체를 연결해 연합하는 연구모형을 살펴본 후, 5장은 결론적으로 연구의 성과를 종합한다. 이러한 구성을 가진 본고의 저자는 비블리오드라마는 역할(role)을 매개로 참여자들이 경험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으로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목회상담을 공동체에 회복시키며, 이는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현장에 적용할 근거가 되므로 목회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성찰한다.

또한 본고에서 연구자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목회에 적용하는 것은 예수의 ‘영혼돌봄’을 통한 영적지도를 교회와 공동체에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피력한다. 즉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을 활용하는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이다. 참여자는 역할(role)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어 ‘자기이해’를 향상한다. 또 상호협력하고 연합하는 관계를 배울 수 있으므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돕는다. 그리고 ‘예수 역할’ ‘예수 만나는 역할’ 등의 경험을 통해 예수의 영적지도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블리오드라마는 개인의 갈등해결과 심리치료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의 기능을 수행해 집단 상호작용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성경을 탐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신앙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소그룹에 머물러있던 비블리오드라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돌봄’으로 교회전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A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실천신학적 관점을 부각케 함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교회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상위 리더집단부터 하위 리더집단까지 순차적인 교육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하도록 그 과정을 구조화 하고 있다. 이러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의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교회의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친교와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A교회에서 실행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 사례의 과정에서 교역자, 지역장 및 교구장, 평신도지도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교회공동체를 연합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모형’으로 피라미드형의 모형을 제시함이 명쾌하다. 이에 부연하면 모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첨가되면 이를 모델화해 귀한 연구결과의 저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수의 ‘영혼돌봄’은 목회상담의 기원으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적치유를 개인과 공동체에 회복시키는 목회상담이다. 실제로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연구자가 시무하는 A교회에서 회의와 토론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행하고,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 모형을 도출함은 매우 창의적이며 연구의 효용성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더불어 좀 더 함께 논의해 보고 싶은 부분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통해 신앙적 교육적 치료적인 접근을 도모하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신학적인 배경과 성경해석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한 주제가 디렉터로부터 전체 공동체로 확산되기까지 굴절이나 상이함이 없이 진행되기 위한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

둘째, 디렉터는 ‘영혼돌봄의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영혼돌봄을 구현하고자한다. 이때 참여자들은 역할을 통해 성경이 쓰인 당시의 상황과 성경인물의 정서를 지금 여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현재 자신의 심리치료와 병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회상담적 통찰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영혼돌봄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운영을 중심으로, 교회공동체를 연결하는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목회상담의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하게하는 본 연구의 후속 연구들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며, 귀중한 논문을 완성하신 곽우영 박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2 발표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 영성지도를 중심으로

박 신 향 박사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지도)

I. 들어가는 말

교회의 문제를 연구한 레지 맥닐(Reggie McNeal)에 의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¹⁾ 신앙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교회가 신앙을 돕지 못한다는 이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 교회를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교인들이나 젊은이들과 언론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심각한 윤리/도덕 문제들로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성성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산상수훈 말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 같다. 곧 교회가 교회 자신의 ‘맛과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을 갖고 찾아오는 구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아픈 현실을 말한다. 왜, 어떻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었던 말인가! 무엇이 교회가 지닌 그리고

1) “그들에 따르면 교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영적인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난예·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종교 너머에 있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2019), 113.

딩연히 지니고 있어야 할 본연의 맛인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출발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²⁾ 곧 본질적 교회로서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교회가 생동하는 유기체로서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조직교회 이전에 그 안에 개개인들의 작은 공동체들, 곧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의 갱신과 회복에 대한 저자들에 의하면 역사 속에서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도모한 이들은 ‘소그룹’을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겼다.³⁾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이 소그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에 소그룹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월로우 크릭 소그룹 이야기』의 저자 빌 도나휴에 의하면 소그룹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그룹을 이끄는 “지도력”, 곧 리더십이라고 지적한다.⁴⁾ 따라서 작은 교회 공동체와 리더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핵심적인 일이다.⁵⁾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것이다: 가. 소그룹 공동체의 역사,

2) 교회, 곧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모임 또는 회합, 그리고 기능을 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탁월한 교회론 학자 한스 쾨에 의하면 교회는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 곧 하나님의 통치와 떼어놓을 수 없다. 바실레이아는 교회가 끊임없이 바라볼 비전이며, 불완전하지만 언뜻언뜻 이 땅의 교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기다리며 순례”하는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증언하며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다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해한다. 본 논문에서 논하는 소그룹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은 모임으로 이해한다. 한스 쾨, 『교회란 무엇인가』, 이흥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1), 98-99.

3)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2), 30-67.

4) “성공적인 소그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지도력”이다. 빌 도나휴, 『월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10.

5) 실천 신학, 특히 목회적 연구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논의들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효과적인 리더십, 그리고 리더들의 자기관리에 대해서까지 다양하다. 카리스마틱한 전통적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멘토링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섬기는 자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소양을 이야기한다. 계재광, “한국교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시각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24호(2010), 367-400; 계재광, “현대문화속에서 영적성숙을 위한 리더십,” 『신학과 실천』, 제42호(2014), 799-824; 문병하, “목회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셀프리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2호(2012), 7-28; Morris Thompson, “The Need for Spiritual Leadership,” *Journal of Applied Christian Leadership*, Vol. 11(2017), 78-82; 김희권, “목회자의 자기 성찰과 성숙을 위한 소고,” 『신학과 실천』, 제83호(2023), 487-516.

나. 영성 공동체 신학,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으로서 다. 그룹 영성지도와 리더십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소그룹 공동체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작은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탐사한다. 다음으로, 역사 탐사를 통해 얻은 결론과 공동체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리더가 이해해야 할 공동체 신학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소그룹에서 작동되는 신학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신학이 실제로 작동되는 현장으로서 그룹 환경에서의 영성지도와 그를 위한 리더십을 정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소그룹 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작동시키는지 연구자의 경험에서 비롯한 통찰을 중심으로 소그룹 영성지도의 한 형태를 제안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교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소그룹에 대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세우고 이끌지 구상하는 데 작은 도움과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

II. 본 말

가. 소그룹 공동체의 역사

교회론으로 저명한 학자 한스 쿡은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는 항상 비본질 속에서 본질을 찾아왔다고 지적한다. “교회의 모든 역사적 양상에는 이 비본질이 마치 그림자처럼 본질을 따라다닌다. ... 교회의 참 본질은 비본질 안에서 나타난다”고 통찰한다.⁶⁾ 즉, 역사적 현실에서 교회는 한편으로 비본질화되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에 끊임없이 저항하여 자신의 본질을 찾아 분투한다는 것이다.⁷⁾

6) 한스 쿡, 『교회란 무엇인가』, 이흥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1), 51.

7) 교회의 비본질화의 지속적인 모습을 ‘세속화’로 알지만 그 구체적 현상은 ‘종교화’로 드러난다. 종교가 된 교회에 대한 본회의 날카로운 비판은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려준다: “첫째, 본회퍼는 종교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절대적 존재로만 파악하는 것을 비판한다. 종교는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너무나 먼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회퍼는 그런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성경의 하나님 이해와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본회퍼는 종교가 기독교적인 삶을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해하지 않고 개인주의적 삶으로 이해한다고 비판한다. ...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란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본회퍼는 종교가 하나님을 특정한 부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종교는 기도, 예배, 등과 같은 종교적 행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현실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분이[다]... 넷째, 본회퍼는 종교가 언제나 바리새적인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조성한다고 비판한다. ... 다섯째, 본회퍼는 종교가 하나님을 선택된 자들을 위해 기적적 도피 수단을 제공해주고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해결사로서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종교는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공동체성’으로 이해하는 김현진에게서도 같은 이해를 만난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공동체들을 추적한 그는 공동체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 교회갱신 운동으로서 주류교회 역사 이면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분명한 하나의 역사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부터 3-4세기에 출현한 사막의 수도 공동체, 서방교회 베네딕토를 대표로하는 수도원 운동들, 중세 말의 수도원 갱신운동,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경건주의에서 발견되는 교회 안 작은 교회 운동, 근대교회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매 시대마다 비본질화되어가는 교회의 정황 속에서 공동체를 일으켜본질을 지켜왔다. 공동체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 교회갱신 운동으로서 역사 속 주류교회사 이면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빠뜨릴 수 없는 다른 한 흐름이다. 주류 제도권 교회가 세속화되어 영적으로 무력한 종교가 되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일어난 교회 본질 회복의 움직임들이었고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맛과 빛을 살려낸 영적 회복의 역사이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의 역사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사막으로 들어간 수도원 영성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그 속에 항상 “본질적인 교회와 비본질적인 교회의 대립/갈등”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⁹⁾

종교개혁은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일어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영성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로부터 터져나온 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이후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이끌고자 한 영적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의존하려는 미성숙하고 과도한 의존성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115-116.

8) “초대교회는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완전한 공동체였다. …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당시만 가능했던 교회공동체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기독교의 세속화에 저항하여 성도의 교회를 통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매 세기마다 이어졌고 현대까지 나타났다. … 수도원주의도 역시 교회가 세속화 조짐을 모아자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 신앙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갱신의 흐름은 기존 교회 밖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다.. 4-5세기에는 수도원주의가 … 교회의 갱신과 구제와 선교에 이바지하였다. 이후 5세기의 베네딕트의 수도원, 10세기의 수도원 갱신운동, 13세기의 프란체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와 같은 탁발 수도회 운동은 제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갱신 공동체들이었다. 13세기에 일어난 프랑스의 왈도파는 제도 교회 밖에서 일어난 평신도 공동체 운동이었다. 14세기의 네덜란드의 공동생활형제단, 15세기의 스페인 알렘브라더스와 체코 형제단,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 … 스위스와 독일의 제세레파는 기성교회 밖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일어난 ‘신자들의 교회(Believer’s Church)’를 이룬 갱신공동체 운동이었다. 그 후 17세기에 들어서 … 야콥 스페너, 헤르만 프랑케,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백작 그리고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건주의는 제도 교회 내에서 교회를 갱신하고자 했던 공동체 운동이었다.”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171-194.

9) 위의 책, 209.

리더들을 통해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소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은 공동체의 유형을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프랑케-진젠도르프-모라비안 교도-웨슬리의 라인을 그리면서 계속 이어졌다.”¹⁰⁾ 처음으로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사역의 중심에 들여온 이는 필립 야곱 스페너(Philipp Jacob Spener)이다. “스페너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평신도 사역, 제자 훈련, 장로의 역할, 소그룹 모임 등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교회갱신에 고심”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체험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주목하면서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 백성, 몸으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¹¹⁾

‘경건한 모임(Collegia Pietatis)’ 또는 ‘비밀 모임’이라 불린 스페너의 소그룹에서 주목할 것은 큰 회중 교회 내에서 줄 수 없었던 경건의 실제적 능력이다. 그는 신자들, 곧 진정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만연되어 있는 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소금”이라고 했다.¹²⁾ 그 모임에서 “성도들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역동성을 체험하며 경건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다.¹³⁾ 김현진은 이 모임에 대해 “교회 내에서 진정으로 복음적 삶에 헌신한 자들의 작은 모임으로서, 비록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보다 헌신된 모임으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바르게 평가한다.¹⁴⁾

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니콜라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에게로 이어져 실제 초대교회적인 공동체의 형태를 띠게 된다. 스페너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진젠도르프는 드레스덴에서 박해를 피해 모라비아 땅을 떠난 후스파였던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을 자신의 영지에 정착해 살도록 받아들인 이 만남으로 헤른후트(Hernhut; ‘주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란 뜻)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공동체는 소규모 모임들과 철야기도를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후에 ‘작은 공동체(Kleine Gesellschaft)’로 불리게 된 ‘속회(band)’이다. 이 모임은 “보통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으로, 성별 또는 기혼 여부에 의

10) 김현진, 『공동체 신학』, 172.

11) 위의 책, 173.

12) Philipp Jacob Spener, “Of The Christian Church,” *Philipp Jacob Spener: Pietist Patriarch*, Trans. by K. Tames Stein(Chicago: Covenant, 1986), 2-10; 위의 책, 174에서 재인용.

13)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37.

14) 김현진, 『공동체 신학』, 174-175.

해 나누어져 일주일에 1-2회, 보통 저녁때 모이곤 했다.”¹⁵⁾ 존 웨슬리(John Wesley)의 1738년 방문 후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 90여개의 속회가 있으며 각 속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2-3회씩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해 준다.”¹⁶⁾ “나는 교제(koinonia) 없는 기독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¹⁷⁾ 진젠도르프의 말은 이 작은 모임의 역동적 성격이 다른 아닌 성도들의 “교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는 교회의 “유기체적 본질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회중’이자 ‘상처받은 양들의 작은 무리’로 보았다.”¹⁸⁾ ‘속회’라고 불린 이 작은 모임은 그 구체적 내용과 성격의 핵심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알려준다.

소그룹 공동체, 속회는 헤른후트 공동체를 목격한 웨슬리에 의해 발전된다. 그는 런던으로 돌아온 후 모라비아 선교사인 피터 뵐러(Peter Bohler)를 만나 모라비안 신앙과 속회 조직법을 배웠다. 웨슬리의 ‘속회’에서 주목할 것은 성도간의 영적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구체적인 환경/적정 인원수이다. 그는 영국 성공회 안에 ‘초대 기독교’를 복원하겠다는 꿈을 갖고 “생명력을 잃은 신도회(societies)를 개혁하기 위해” 그 구조를 ‘신도회’, ‘신도반(class)’, ‘속회’와 ‘웨슬리 순회 설교단’으로 개편한다. ‘속회’는 5-10명이 모여 “분명히 회심한 사람들의 영적 진보를 돕는 계약 그룹(Covenant Group)이었다.”¹⁹⁾ ‘신도반’ 모임은 “주 1회 한 시간 정도의 모임을 가지며 약 12-15명인 구성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친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신자들은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였다.”²⁰⁾ 이 모임에 대한 그의 회고 말은 무엇이 ‘교제’의 비밀인지를 엿보게 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독교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 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돌보아 줄 수 있게 되었

15) 위의 책, 181.

16) 위의 책, 182.

17) A. J. Lewis, Zinzendorf the Ecumenical Pioneer,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67; 위의 책, 183에서 재인용.

18) 위의 책, 185; “진젠도르프는 복음전도와 증거를 위해서는 농도 짙은 공동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의 책, 186.

19) 이 속회(band)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1) 적어도 일주일에 1회 모인다. (2) 약속된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3)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다. (4) 각자 차례대로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되 지난 모임 이후에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느낀 유혹에 대해 말한다. (5) 회원 중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상태와 유혹에 대해서 질문한다.”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41.

20) 웨슬리의 세 종류의 작은 공동체 모임의 성격 구분은 다음을 참조하라. 위의 책, 40-42.

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긴밀한 사귀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간에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으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나가기 시작했다.²¹⁾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다.

스페너의 ‘경건의 모임’은 교회 안에서, 진젠도르프의 ‘속회’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간의 교제가 가능한 작은 모임으로 소그룹 형태를 강조였다. 웨슬리는 ‘신도반’과 ‘속회’와 같은 작은 모임을 중심으로 교회 전체 구조를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발전시켰다. 이들 세 개혁가들의 작은 모임은 역사 속에서 부단히 지키고 발전되어 온 교회의 본질을 담은 그릇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다름 아닌 ‘교제’이다.

나. 공동체 신학

1) 교회의 본질, 교제(koinonia)

교회의 본질, 이들 모임에서 나타나는 ‘교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일서 저자도 강조하여 증언하는 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며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다.²²⁾ 이는 교회의 본질인 만큼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무 노력 없이 쉽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현대신학자 디이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 교제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그에 관한 책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다 함께 공동으로 수고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사로움 모임의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바로 교회에 던져진 과제인 것입니다.”²³⁾

본회퍼는 그리스도인 교제에 관하여 큰 맥락에서 중요한 신학적 이해 세 가지

21)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London: Mason, 1829-1831), 3rd ed. Ed. by Thomas Jacson, 13; 55;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9에서 재인용.

22)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요한일서 1:3-4.

23) 디이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3.

를 전한다. 첫째, ‘교제’는 신자들에게 “기쁨과 힘의 원천”이다.²⁴⁾ 근원적으로 고독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생수와 같다. 교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뵈 수 없으나 형제자매를 통해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이기 때문이다. 본회퍼는 형제를 대할 때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표시로 보는 것입니다. 방문객이나 방문을 받는 사람이나 다 그 고독 가운데서 서로 상대방을 육신을 이루어 와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겸손하고도 즐겁게 주를 맞이하듯 서로를 맞는 것입니다.”²⁵⁾

그래서 이러한 성도간의 교제는 은총의 선물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²⁶⁾ 본회퍼는 이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 제시한다. 먼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귀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본회퍼의 다음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나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²⁷⁾

다른 하나는 유일한 중보자이고 화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결코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다’는 것은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언젠가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

24) 위의 책, 20.

25) 위의 책, 21.

26) 위의 책, 22.

27) 위의 책, 25.

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²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서로가 영원히 함께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영적 현실을 전제로 둔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깊어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사이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사권이 참되어지고 또한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다른 것은 사라지고 그만큼 더 뚜렷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만이 유일한 것으로 우리 사이에서 살아 있을 것”이다.²⁹⁾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세 가지 비밀을 이해한다: ①교제는 성도의 기쁨과 힘의 원천이고, ②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는 전제가 있으며, ③ 교제의 결과로 모임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게 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2) 공동체 신학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간의 교제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공동체의 성격과 요건은 무엇일까? 오늘날 영성가들은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일반적 모임과 구분하여 영적 공동체 혹은 영성 공동체라고 명명한다. 영성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 전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성 공동체는 ‘영적’ 교제(koinonia)가 있는 곳이다. 영성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존재하며 함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곳이다.³⁰⁾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생활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곧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를 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 말하며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모든 회원이 살아 있는 총체로서 더욱 긴밀히 결합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랑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사랑’이어야 한다. 영적 교제라 함은 영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본회퍼의 설명에 의하면 영적인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결코 가지지 않는 반면에 인간의

28) 위의 책, 23.

29) 위의 책, 29.

30) 로즈마리 도어티, 『그룹 영성지도: 분별을 위한 공동체』, 이만홍·최상미 옮김, (서울: 도서출판로템, 2010), 27.

자연적인 사귄에서는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사귄을 바라는 인간의 깊고도 근본적인 녀의 욕구가” 움직인다.³¹⁾ 영적인 사랑은 그러한 자신의 숨겨진 욕구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지극한 존중을 갖고 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사랑으로 남을 이래라저래라 휘두르려고 한다든가 지배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에게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를 위해서 사죄를 전취하셨고 영생을 마련해주신 그런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³²⁾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 영적 사랑의 비결이다.

둘째, 영성 공동체는 그 기초를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둔다. 이것은 올바른 교제를 위하여 수도 공동체마다 최우선에 두고 있는 규칙이다.³³⁾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이 공통의 기초를 추구할 때만 진정한 친교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³⁴⁾ 개 개인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를 둘 때, 즉 “인격적으로 이 공통의 기초를 추구할 때만 진정한 친교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³⁵⁾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이상적인 영적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³⁶⁾

셋째, 영성 공동체는 개 개인의 가슴 속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처하신다는 신비를 믿는다. 따라서 서로를 대해 그리스도께 하듯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상호존중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말한다.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께 드리는 존경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규칙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서로 공경할 것이다”라고³⁷⁾ 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31) 디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38.

32) 위의 책, 42-43.

33)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아돌라르 줌켈러 주석, 이형우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6); 『성 베네딕도 규칙』 허성석 번역 및 주해, (왜관: 들숨날숨, 2011)

34)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36.

35) “따라서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 공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수도 생활 전체를 특징짓는다.”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36-37;

36) 로즈마리 도어티, 『그룹 영성지도: 분별을 위한 공동체』, 36.

37)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74.

대신하여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사랑으로 염려할 때, 서로에게 필요한 충고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자리에서 거룩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³⁸⁾ 그것은 우리의 말에 겸손, 신중함, 그리고 책임성을 부여한다.

넷째, 영성 공동체는 “각자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이 있다.³⁹⁾ 하나님이 친히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관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건강한 ‘경계’를 지킨다.⁴⁰⁾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공동체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충동을 떨치고 개인으로 하여금 더 온전한 여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많은 경우 영적 공동체의 능력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광야에서 겪는 고통과 필요까지도 허락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다.⁴¹⁾

다섯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성 공동체의 원형이자 표상이시다.⁴²⁾ 사실 앞의 모든 것, 즉 영적 교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개인과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은 본질상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서로간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38) 위의 책, 125.

39) 위의 책, 37.

40) “자신의 경건한 정열과 흥분에 도취하지도 않고 언제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이 말씀에 언제나 지나 맡겨두고, 그를 조금도 속박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와 관계를 가지게 하도록 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그어 주신 한계선을 존중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충분한 사귀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이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43-44.

41) 로즈마리 도어터, 『그룹 영성지도: 분별을 위한 공동체』, 37-38.

42)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심오한 일치와 친교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수도생활 공동체의 숭고한 표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완덕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적 형제애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40-41.

을 가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perichoresos’라는 기술적인 삼위일체 용어가 표현하듯이 서로 ‘안에 거하며(indwell)’, 서로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고’(make room),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환대한다.⁴³⁾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 주고 환대하는 깊은 수용과 일치 관계, 그 안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와 같은 공동체를 가슴에 두시고 또 친히 그 공동체를 건설하는 원천과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다.⁴⁴⁾

III. 소그룹 영성지도와 리더십

본질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에서의 영적 리더십은 앞에서 논의한 영성 공동체 신학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세상의 권위적인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리더는 모임과 모임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이다. 수도원이나 영성 공동체에서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다. 주로 소명과 은사를 가진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를 책임자로 선출하곤 했다.⁴⁵⁾ 비록 시대마다, 전통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 오늘날 영성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영성 지도자(spiritual director)’라고 부른다.⁴⁶⁾ 영성지도자의 리더십은 기초가 되는 이해를 공유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일대일 형태와 그룹 형태가 각기 독특한 유익들과 유의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일대일 관계에서보다 소

43) 다니엘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장경철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114.

44) 위의 책, 110-115.

45) 『성 베네딕도 규칙』, “제 64장 아바스의 선출,” 461-463; “그리스도인 리더란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소명),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성품),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능력)이다” Henry &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31, 장경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효과적인 멘토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9권(2013), 228에서 재인용.

46) 김경은, “영성지도의 역사: 영성지도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5권(2018): 11-41; 케네스 리치, 『영혼의 친구』, 신선명·신현복 옮김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06), 67-151.

그룹 영성지도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기로 한다. 그중에서도 모두가 서로에게 영성지도자가 되어 주는 형태의 그룹 영성지도(all for one type)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논하기로 한다. 이것은 “만인사제직의 신학적 실제적 의미가 이해되고”⁴⁷⁾ 있었던 개신교 경건주의에서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그룹이라 짐작하기 때문이다.

첫째, 영성 공동체의 리더는 모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곧 영성지도가 일어나도록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한다. 영성지도는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어계신 진짜 지도자이신 성령을 찾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길”이다.⁴⁸⁾ 선행되는 일, 곧 성령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찾는 일은 다음 단계의 일, 곧 그분께 순종하는 일을 자연스레 이끌어간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각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현존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움직임과 그 흔적을 찾아 주목하는 일이다. 리더를 포함한 모임 안의 모든 성원은 자신의 내면과 모임의 역동 속에서 진짜 영성지도자인 성령을 알아차리고 주목함으로써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돕는다. 그룹원 모두가 영성지도자로 개인의 이 일을 위해 봉사한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초점이 되어 그룹원들의 이 도움을 받아 자신을 위한 이 일을 한다. 리더는 이러한 일이 소그룹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공동체에서 가능한 대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리더는 이를 위해 매 모임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도하고 진행 중에 모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시 개입하여 섬긴다.⁴⁹⁾

둘째, 리더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잘 알고 익숙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모범을 보이기도 한다. 모임의 주요 일인 성령의 움직임을 찾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관상(contemplation)’의 일이다.⁵⁰⁾ 소그룹에서 함께 할 수

47) 김현진, 『공동체 신학』, 178.

48) Thomas Merton,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Mansfield Centre: Martino Publishing, 2013), 30.

49) 그룹 영성지도와 그 리더십에 관한 제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이후 이어지는 그룹 영성지도에 관한 설명들을 포함하여 여기서 논한 그룹 영성지도는 이들을 참조하고 연구자 자신의 영성지도자로서의 훈련과 근 20년간의 실제 경험들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로즈마리 도어티, 『그룹 영성지도: 분별을 위한 공동체』; Alice Fryling, *Seeking God Together: An Introduction to Group Spiritual Direction*, (Downers Grove: IVP, 2009)

50) 기독교 관상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위해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고계영 엮음,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 성소인 관상』, (서울: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3).

있는 좋은 길로서 ‘관조적 경청(contemplative listening)’을 제안할 수 있다. 아니, 이 외에는 알려진 다른 길이 없다. 본회퍼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누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섬김으로 형제 사랑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이다.⁵¹⁾ 관상(contemplation)의 고전적인 표현, “오랫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재를 바라보는 것(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이⁵²⁾ 의미하는 핵심도 ‘사랑’이다.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매의 말과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며 귀 기울이면서, 실제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찾아낼 수 있는 어떤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 겸손히 사랑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고 은총이다. 모임에서 구성원 모두의 일은 단지 이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찾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 치유는 이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곤 한다.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온갖 얽어매는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적 힘의 자라감이다. 관조적 경청과 그에 따른 반응의 반복 속에서 개개인과 모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자유가 점차 자라간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재를 찾아 오롯이 귀 기울이고자 하면 우리 자신 안에서 아우성치는 자아의 목소리들에 먼저 부딪히게 된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물들어 온 선입견, 편견,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연과 같은 생각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며 나를 몰아가려는 정서들도 있다. 지배욕, 우월의식, 뭔가 도움이 되어 주목받고 싶은 욕구는 영혼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아주 교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까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 모든 것을 주님의 구원활동을 위해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이 경청 속에서 참여하는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내적 자유를 경험한다.

이 과정은 관상적이다. 과정에서 요구하는 분별과 성찰은 말보다는 상당한 침묵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묵은 자연스레 수반된다. 이러한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부드럽고 생산적이기까지 하다. 구성원들이 침묵에 익숙해지면서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말없이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모임에 자신을 두기로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이다. 이런 순간을 포

51) 디이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128.

52) Walter J. Burghardt, “Contemplation: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Church*(winter, 1989), 14-18.

착하고 주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임 안에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리더의 탁월한 기술(art)이다. 이런 종류의 안내는 영적 민감성, 혹은 분별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리더 스스로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영적 경험이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술(art)이다.

셋째, 리더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인 영성 공동체의 ‘토양’을 일구고 돌보는 것이다. 모든 영성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규칙(rule)’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규칙서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헤르후트 공동체도 규약(covenant)과 규칙을 정하여 공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⁵³⁾ 규칙을 세워 동의하는 것은 모임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함이다. 리더는 규칙에 포함될 내용으로 모임의 목적과 진행 방식, 그리고 그 일을 위한 필수 요건들을 포함하여 가안을 만든다. 리더와 참여자 모두가 첫 모임에서 함께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약속함으로 모임을 위한 기초적 환경이 만들어진다.

다음은 현대 개신교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규칙의 예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영성훈련을 위한 소그룹을 위하여 현대 영성가들이 제안한 여러 규칙들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여 성찰을 반복하며 발전시켜온 것이다.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그룹 약속:

1.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현재에 의해 가두어지지 않음에 동의한다.
2. 우리는 관조적 경청 속에 있는 성령의 활동에 의해 우리 중심(heart)이 형성되도록 허락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방해함을 인정하고 피한다.
3. 우리는 침묵과 말의 균형을 연습할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말하도록 할 것이다.
4.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말하고, 관점의 다양성을 환영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것이다.
5. 우리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다 싶을 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강한

53)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0.

감정들을 인정/고백할 것이다.

6.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모두를 존중하여 들은 모든 이야기(자신의 이야기를 제외함)를 비밀에 부친다.

규칙을 세움으로써 구성원들의 영혼과 삶에 실제적 변화를 위한 환경을⁵⁴⁾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그룹의 리더가 가장 먼저 진행할 영성지도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역동이 일어나는 소그룹의 길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먼저,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를 추적 관찰하여 공동체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갱신운동과 맥을 같이함을 확인하고 소그룹 공동체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이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교회의 본질로서 교제가 무엇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신학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 모델로서 영성지도의 소그룹 진행과 그를 위한 리더십을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영성지도를 실천하면서 항상 개인 영성지도보다 그룹 영성지도에서 경험하는 은총과 역동이 쉽고 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그 이유는 명료히 알지 못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다음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다: 첫째, 그룹 영성지도 공동체가 작은 소그룹 공동체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 여러 형태들 중 가장 발전된 것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룹 영성지도가 공동체 신학뿐 아니라 '만인사제직'을 실천하는 영적 돌봄으로서 개신교에 적합한 소그룹 모델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단지 특별히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삶으로 부르셨다. 이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섬겨 돌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날 생기를 잃어가는 교회

54)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다.” 앤디 스탠리, 빌 윌렛,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의 성장 비결』, 이종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45.

안에 본질을 추구하는 ‘작은 교회’, 곧 여러 모양으로 소그룹 영성지도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준비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훈련할 것을 조언한다: 공동체 신학을 통해 영적 소그룹의 특성과 전제들을 이해할 것, 자신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며 여정을 지속할 것,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임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을 지향할 것.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활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소그룹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고계영 엮음.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 성소인 관상』. 서울: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3.
- 김난예·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종교 너머에 있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2019.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2.
- 다니엘 밀리오리. 장경철 옮김.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디이트리히 본회퍼. 문익환 옮김. 『신도의 공동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로즈마리 도어티. 이만홍·최상미 옮김. 『그룹 영성지도: 분별을 위한 공동체』. 서울: 도서출판로템, 2010.
- 빌 도나휴. 송영선 옮김. 『일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 아돌라르 줌켈러 주석. 이형우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앤디 스탠리·빌 윌릿. 이중순 옮김.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의 성장 비결』.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 케네스 리치. 신선명·신현복 옮김. 『영혼의 친구』,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06.
- 한스 쿵. 이흥근 옮김.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91.

- 허성석 번역 및 주해. 『성 베네딕도 규칙』. 왜관: 들숨날숨, 2011.
- 김경은. “영성지도의 역사: 영성지도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5권(2018): 11-41.
- 김희권. “목회자의 자기 성찰과 성숙을 위한 소고.” 『신학과 실천』. 제83호(2023): 487-516.
- 계재광. “한국교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시각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24호(2010): 367-400.
- _____. “현대문화속에서 영적성숙을 위한 리더십.” 『신학과 실천』. 제42호(2014): 799-824.
- 문병하. “목회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셀프리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2호(2012): 7-28.
- 장경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효과적인 멘토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9권(2013): 218-248.
- Fryling, Alice. *Seeking God Together: An Introduction to Group Spiritual Direction*. Downers Grove: IVP, 2009.
- Lewis, A. J. *Zinzendorf the Ecumenical Pioneer*.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Vol.14. ed. Jaroslav Pelikan St. Louis: Concordia, 1958.
- Merton, Thomas.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Mansfield Centre: Martino Publishing, 2013.
- Spener, Philipp Jacob. “Of The Christian Church.” Philipp Jacob Spener: Pietist Patriarch. Trans. by K. Tames Stein. Chicago: Covenant, 1986.
- Wesley, John. *The Works of John Wesley*. 3rd ed. Ed. by Thomas Jacson. London: Mason, 1829-1831.
- Burghardt, Walter J. “Contemplation: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Church. (winter, 1989): 14-18.
- Thompson, Morris. “The Need for Spiritual Leadership.” *Journal of Applied Christian Leadership*. Vol. 11(2017): 78-82.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 영성지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김 태 훈 박사

(횡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

1. 박신향 교수는 자신의 논문 서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본연의 “맛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다분히 선언적인(declarative) 진단을 내리며 그 해결책으로 소그룹의 “회복”을 제시한다(p. 1).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비를 믿으며,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이 있는 작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을 역설한다.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도 수가 감소하고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교회가 처한 현실의 반영일 뿐,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설득력 차원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연구자의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

2. 한스 쾨링과 김현진을 인용하며, 본 논문은 본질과 비본질 사이의 충돌 내지는 투쟁이 교회사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축임을 강조한다. 세속화와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스페냐의 ‘경건한 모임,’ 진젠도르프의 ‘속회,’ 그리고 웨슬리의 ‘신도반’에서 확인되듯이, 긴밀한 교제와 영적 나눔이 있는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담아 온 “그릇”이다(pp. 2-5).

논문의 핵심 키워드가 “영성 지도”임을 고려할 때, 각 공동체 운동에서 개인의 내면을 다루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오늘날의 영성 지도자의 그것과 유사했는지,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는지, 스페너나 웨슬리 같은 개혁가들은 영성 지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 혹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3. ‘공동체 신학’을 다루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교회의 본질이 ‘교제’(koinonia)에 있음을 말해 준다. 본회퍼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며, “그리스도 외에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pp. 5-7).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분 안에서 사귀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깊은 신뢰와 축적된 시간,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교제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영성 아카데미나 간헐적 모임에서가 아닌, 동일한 지역 교회-온갖 종류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린다. 이것은 논찬자가 오랜 기간 품어 왔던 고민이기도 하다[ex. 목양실에서 매일 부대끼고 살아가는 교역자들끼리 본회퍼가 지향하는 나눔의 실천이 가능할까?]. 20년 가까이 다양한 현장에서 영성 지도를 가르치고 적용해 오셨던 박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4. 필자는 영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5가지 신학적 전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는 “각자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공동체이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충동을 물리치고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개개인이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pp. 7-9).

피지도자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영성 지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무언가 ‘유의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4-5세기 사막을 비롯하여 많은 영성 전통에서 ‘초연’(detachment)이 중요한 훈련으로 강조되어 온 이유일 것이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경계’를 유지해 오셨는지, 연구자에게 질문을 드린다.

5. 소그룹 영성 지도와 리더십을 다루는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논문은 ‘관조적 경청’(contemplative listening)의 개념을 제시한다. 본회퍼의 표현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도자들은 온갖 선입견과 얽매임, 자아의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pp. 10-11).

저자는 관조적 경청에 있어 ‘침묵’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봉사과 섬김으로 대변되는 활동 중심의 현실 목회 안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시류에 역행하는 변혁적 운동일 것이다. 박 교수님은 오랜 기간 지역 교회에 뿌리를 두고 영성 지도를 실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침묵과 말, 관상과 행동, 혹은 being과 doing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오셨는지 질문을 드린다.

6. 귀한 논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신향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한국교회가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영성적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논문의 핵심 논지에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활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p. 13)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소그룹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저 역시 소망한다.

“영혼을 살리는 역동적 소그룹: 영성지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한 혜 연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학)

위 논문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한국 교회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그룹 영성 지도를 통해 역동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비본질을 추구하던 당시 주류 교회와는 반대되는 흐름의 본질을 추구한 작은 공동체들의 역사를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 소그룹의 리더가 이해해야 할 영성 공동체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교회 현장에서 그룹 영성 지도와 리더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룹 영성 지도의 규칙과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그룹 영성지도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논문의 기여와 현실적 한계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흐름에 편향된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일반화되면서 이와 같은 교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필자가 언급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참고해야 할 역사적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작은 공동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영성 공동체의 5가지 신학적 전제—1) 영적 교제가 있는 곳 2) 그 기초를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두는 것 3) 개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신비를 믿는 것 4) 각자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 5) 삼

위일체 하나님이 영성 공동체의 원형이자 표상—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성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영성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필요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으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위 논문이 제시한 소그룹 영성지도는 공동체성이 무너진 각 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언급한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속회 운동은 감리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고,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재 많은 감리교회 안에서 팬데믹 이전의 형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안의 공간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형식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속회를 비롯해 교회 안의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이전의 깊이 있는 신앙적인 나눔과 관계성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필자가 제시한 그룹 영성지도가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교회 안의 소그룹 체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깊이를 더해주는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룹 영성지도는 AI 시대와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초연결 사회 안에서 온라인상의 모임과 관계성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유기적인 오프라인상의 종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하기 쉬운 초연결 사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그룹 영성지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논문에 언급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제시한 그리스도인 교제의 3가지 신학적 이해—(1) 교제는 신자들에게 기쁨과 힘의 원천이며, (2)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 중요하고, (3) 교제의 결과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게 되는 변화—는 그룹 영성지도가 표면적이고 가벼운 온라인상의 관계성에 한계를 느끼며, 더 깊은 종교적, 사회적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교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다만, 필자가 강조한 것처럼, 그룹 영성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리더와 시스템은 단기간의 교육이나 경험, 혹은 논문에 제시된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쉽게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룹 영성지도가 교회 안의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에게 영성지도에 대한 전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평신도 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그룹 영성지도 참여자들에게도 영성 지도에 대한 전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필자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에, 영성지도가 한국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돕는 노력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2. 논문의 보완점과 질문

위 논문은 개인 영성지도보다 그룹 영성지도에서 더 큰 역동을 경험한 필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이유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 존재하는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전반부가 구성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전반부에 등장하는 “나. 공동체 신학” 부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신학, 필요성이 다른 소그룹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룹 영성지도의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교회의 위기와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반부의 이론적인 연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 이론들이 그룹 영성지도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형태로 논문이 구성되었다면 각 부분에 언급된 의미 있는 성찰들이 하나의 흐름과 논리로 구조화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린다.

1) 5페이지 앞부분에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목적을 요한1서 1:3-4를 근거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제시하셨고, 뒤 이어 본회퍼가 언급한 그리스도인 교제의 3가지 신학적 이해를 언급하셨는데, 소그룹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론과 의견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강조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그룹 영성지도의 모델 안에서 이 두 가지 성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결론 부분에서 그룹 영성지도 공동체를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 여러 형태들 중 가장 발전된 것으로 오늘날의 교회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지면의 한계로 언급하지 못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결론 부분에 제시하신 그룹 영성지도가 개인 영성지도보다 더 효과적이고 역

동적이었던 이유가 앞부분에 제시하신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영성지도를 실천하시면서, 또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있으셨다면, 박사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룹 영성지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박신향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실천 신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윤리규정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개정일: 2024년 4월 6일

제1조 (근거)

한국실천신학회는 변화하는 연구윤리이해에 따라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8.7.17.)등에 따라 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기대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강령)

본 학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정직과 진실 및 공정에 기초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과 공정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과 공정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진리와 정의의 학술적 가치는 특히 특정 사회집단(젠더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유의할 것을 요구한다.

제4조 (실천원칙-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정한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가 축적해온 학문적 성취를 성실히 전승하고 동료학자들과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학술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역사에 독창적으로 기여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모든 통용되고 허용되는 방식에 의해 타인의 기여 부분과 자신의 기여 부분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 명시해야 한다.
2. 그 외 본 학회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가 규정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참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인간 대상 연구’는 사전에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투고 시 원고 내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의 윤리적 관계는 사회조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3. (투고자의 정확한 정보표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9 및 본 학회 투고규정 제2조-2와 제3조-2에 따라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고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한다.

3-1. (공저자 표기방식) 본 학술지는 고유한 인문학적 특성상 공동저술 논문의 경우, 발행논문에서 ‘주저자’ ‘교신저자’ 등의 세분 없이 모든 저자를 단순 병기하여 공동합의기여를 강조한다.

4. (저자 자격) 본 학회는 투고규정 제2조-2에 따라 게재논문의 높은 학술적 및 윤리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자격을 부여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 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되, 단독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여 논문에 대한 기여를 엄격히 관리한다. 저자의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 자, 2) 초안을 작성하거나 연구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공헌을 한 자,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한 자, 4) 저작물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하는 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한 자,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 가운데 1명으로 온라인 투고시스템과 편집위원장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한다. 저자 순서는 공동저자 사이에서 합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논문접수 후 저자의 추가나 책임저자의 변경은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5.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투고 시 원고 내에 연구비 지원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권고사항에 따라 저자들의 잠재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원고 내에 명시해야 한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이 있다.
6.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7.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다.
8.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지는 내외부 학술연구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전 회장단 중 10인 이내로 신입임원회에서 위촉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의 사용

2. 변조 -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3. 표절 -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용, 자신의 것인 듯 오인케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 발표하는 경우. 친인척 등 이해관련자를 공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정행위.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검증, 기간, 처리)

1. (검증의 책임)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1과 제17조에 따라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진다.
2.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는 본 학회 학술활동의 심사와 평가를 책임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받는다. 의심사항이 접수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기관장과 협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2와 제21조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검증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1, 제19조, 제20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착수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실명제보만 처리하되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최종판정 전까지 부정행위가 공표돼선 안 된다.
 - 피조사자는 조사 일정과 과정 및 조사자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피조사자는 소명과 이의제기 및 조사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부정행위 판정 시 조치) 투고자나 발표자가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또는 취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고 이를 보존한다. 저자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부정이 적발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8조 (연구지원비 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학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비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비감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한국실천신학회 제29대 조직표

고 문

고 문	김외식	박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김종렬	박사	새고을기독교서원 원장
	문성모	박사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백상열	박사	은진아카데미 원장
책임고문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김윤규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조기연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종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김성민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한옥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재국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경진	박사	소망교회 담임 목사
	김상백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황병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제14대 이사회

이 사 장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상임이사	서승룡	박사	새전주중앙교회 목사
이 사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황병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이수환	박사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김한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최진봉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김한성	박사	아신대학교 교수
	주희현	박사	홍익대학교대학원 외래교수
	이상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김경은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오주영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제29대 임원명단

회 장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선임부회장	박은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부회장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김한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총 무	김병석	박사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부총무	이강학	박사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주희현	박사	홍익대학교 외래교수
서 기	남성혁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부서기	김해영	박사	강서대학교 교수
	문진형	박사	백석대학교 교수
회 계	이상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부회계	이민형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최종일	박사	제주대학교 외래교수
감 사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이수환	박사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리더십분과	주희현	박사	홍익대학교 외래교수
설교분과	최진봉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상담치료분과	이상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영성분과	김경은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예배분과	오주영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김한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김한성	박사	아신대학교 교수
교회교육분과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신학과 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행인	구 병 옥
편집위원장	황 병 준
부편집위원장	김 명 실
편집위원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반신환, 유재경, 주연수, Sangyil Sam Park(미국)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학회로고의 의미

-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회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 * 가운데 ㅅ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라어 λ로 성육적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 ㅅ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 외부의 등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데 ㅅ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명된다.

한국실천신학회 설립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praxis.or.kr

발행일 2024년 9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 901호

TEL: 041-560-8106

이메일 : ipraxis@daum.net

학회은행계좌 총입출금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학술지계재비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